

중국, 반덤핑 정책 운용 변화조짐

TDI 덤핑세율 대폭인하에 MDI는 취하 ... 수요기업 입장까지 고려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반덤핑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Urethane의 원료인 TDI(Toluene Diisocyanate)에 대한 덤핑방지세율을 대폭 인하했으며, MDI(Methylene di-para-Phenylene Isocyanate)는 예비관정을 앞두고 제조기업들이 제소를 취하였다.

중국의 반덤핑관세율 인하 및 제소 취하 조치는 반덤핑에 따른 수입제한이 다운스트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한국을 비롯한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활로가 되고 있다.

TDI는 2003년 6월 중국 정부가 반덤핑 예비관정을 내려 일본·한국·미국기업들에게 19-49%라는 고율의 덤핑과세를 부과했으나, 12월초 내려진 최종경정에서는 맞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이 3-5%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MDI도 예비관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12월 중순 제조기업인 엔타이화학(烟台化工)이 제소를 취하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TDI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중국은 2002년 WTO 가입에 맞춰 10.5%에서 6.5%로 조정한 바 있는데, 반덤핑세율이 3-5%에 불과해 수입관세와 덤핑관세를 합해도 10% 안팎에 머물게 됐다.

MDI는 엔타이화학이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조건부 무혐의 관정이 내려졌다. 중국의 반덤핑 제도는 예비관정이 내려진 후 제소를 취하하면 절차상의 문제로 수년간은 다시 제소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엔타이화학은 예비관정을 앞두고 제소를 취했기 때문에 2004년 이후 다시 제소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게 됐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TDI 및 MDI 반덤핑 처리로 보아 중국의 반덤핑 정책이 한층 유연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의 자체 생산만으로는 공급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뒤따르는 원료 공급불안과 가격폭등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이 수요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반덤핑 제소를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02>